

북유럽 입양동포의 한국 접촉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한혜민 · 안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 3.1. 연구 참여자 및 인터뷰 방법
 - 3.2. 분석 방법
4. 한국과의 접촉 경험: 참여자 서사
 - 4.1. 참여자 A
 - 4.2. 참여자 B
 - 4.3. 참여자 C
5. 접촉 양상에 따른 정체성 재구성
 - 5.1. 물리적 접촉: 한국 방문과 체류 경험을 통한 정체성 감각
 - 5.2. 관계적 접촉: 가족 상봉과 입양인 공동체
 - 5.3. 언어적 접촉: 한국어 학습과 사용 경험
 - 5.4. 문화적 접촉: 문화 경험과 감정적 연결
 - 5.5. 접촉 경험의 통합적 의미: 경계적 정체성
6. 결론

* 이 연구는 이중언어학회 제50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2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제1저자: 한혜민, 교신저자: 안정민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유럽 한국인 입양동포 3인의 사례를 통해 한국과의 접촉 경험이 정체성 인식과 소속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심층 인터뷰 자료를 주제 분석한 결과, 접촉 경험은 물리적 접촉, 관계적 접촉, 언어적 접촉, 문화적 접촉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접촉은 외모적 동질성과 장소 경험을 통해 연결감을 강화하면서도 이질감을 동반하였고, 관계적 접촉은 가족 상봉과 공동체 경험을 통해 가장 강한 정체성 변화를 유발하였다. 언어적·문화적 접촉은 한국과의 지속적 연결을 형성하는 매개로 기능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과 입양국 사이에서 경계적·혼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북유럽 입양동포의 접촉 경험을 유형화하여 정체성 재구성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입양동포, 해외입양, 북유럽, 접촉 경험, 정체성

1. 서론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은 한국 전쟁 이후 전쟁 고아가 급증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역사도 어느덧 70년이 넘었다(재외동포사총서 2007).¹⁾ 입양동포들은 미국,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1980년대 '아동 수출국 1위'라는 타이틀(장윤수 2008)은 국내 입양의 활성화로 벗어나게 되었지만, 국내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이 향상된 현재에도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김혜영 2013; 권희정 2015), 여전히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이 진행 중이다.

2014년 이전까지 총 166,138명이 해외로 입양되었으며, 2024년까지 누적 해외입양 인원은 168,564명에 이른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입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2년 142명, 2023년 79명, 2024년 58명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2024년 해외입양은 전체 입양의 27.4%를 차

1) 재외동포사총서(2007). 입양이민,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oksr_005_0020_0030#none (검색일: 2026.3.24.)

지하였다(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 2024년 국내외 입양현황 2025).²⁾ 이러한 수치는 1950년대 이후 해외입양이 급증한 이후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장기적 추이를 보여주지만,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해외입양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국가임을 보여주기도 한다.³⁾

최근 3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 279명 중 약 76%는 북미로, 약 20%는 유럽으로 입양되었다. 특히 유럽 내에서는 북유럽(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이 전체 유럽 입양의 약 67%를 차지하여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북유럽 입양동포 공동체가 유럽 내 한국계 입양인의 주요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적 근거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사과와 입양 기록 공개 움직임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은 해외입양의 역사적 맥락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⁴⁾ 이러한 사건들은 입양동포의 정체성 탐색과 모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을 ‘입양동포’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는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입양동포가 ‘외국국적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인 ‘입양인’ 대신, ‘동포’

2) 보건복지부(2025.5.14.), ‘사전정보공표 2024년 국내외 입양현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100&bid=0040&act=view&list_no=1485947&tag=&cg_code=&list_depth=1 (검색일: 2026.1.10.)

3) 최근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기준을 비롯하여, 가정위탁 중심 보호체계 강화 및 해외입양 축소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입양을 둘러싼 사회적·시대적 맥락이 전환기에 있음을 보여준다.

4) 네덜란드 입양인 부부 신승엽(54)씨와 김미애(55)씨는 입양된 지 약 50년이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하였고, 2025년 3월 26일, 진실화해위에서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하면서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중앙일보(2025). ‘부모 있는데 고아로 속여 해외입양...진실화해위, 56명 인권침해 확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844> (검색일:2026.1.10.) 2025년 4월 전북일보 기사에서는 위 사실을 보도하며 “출산한 산모에게 아기가 사망했다고 속이고 입양을 보내거나 집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부모를 찾아주지 않고 고아라고 속여 입양을 보냈다. 입양과정에 있는 아이가 사망하면 바뀌치기하고, 양부모에게 강제 기부금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하였다. 전북일보(2025). ‘해외입양의 불편한 진실’, <https://www.jjan.kr/article/20250408580206> (검색일:2026.1.10.)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국외로 입양아를 보내야 하는 현실에 대하여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감과 연대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⁵⁾

해외 입양동포는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으로 입양된 사람들로,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정체성 탐색과 문화적 도전에 직면해 왔다(Bergquist 2003: 399-401; Trenka 2009: 15-20). 이들은 외국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혼란, 뿌리에 대한 질문, 모국에 대한 거리감 등 다양한 감정과 인식을 경험해 왔다(박인선 1994: 45-47).

디아스포라 연구는 모국과의 접촉이 방문, 사회적 관계, 문화 경험, 언어 사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정체성 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Levitt & Glick Schiller 2004: 1008-1010; He 2010: 70-72). 국제입양 연구 또한 문화 사회화와 모국과의 관계 경험이 입양인의 자아 개념과 민족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Lee et al. 2006: 573-575).

본 연구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출신 한국 입양인 세 명의 사례를 통해, 한국과의 접촉 경험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언어 학습, 가족 상봉, 한국 방문 등의 경험이 입양인의 자기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입양동포는 한국 방문, 가족 관계, 한국어 학습, 문화 경험 등의 접촉을 어떻게 의미화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하는가?
2. 접촉 유형에 따라 입양동포의 정체성 인식과 소속감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접촉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과정에서 참여자 간 공통점과 차이는 무엇인가?

5)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입양동포'라는 용어는 재외동포 관련 법률에서의 법적 범주를 참고하되, 이를 그대로 동일시하기보다는 해외 입양인이 모국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정체성 형성과 소속감,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포괄하는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 용어는 해외입양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규범적 문제의식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 영어로는 'Korean adoptees'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이는 디아스포라적 정체성과 모국과의 연결을 내포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한다.

2. 선행 연구

해외 입양동포의 정체성, 모국과의 관계, 그리고 언어 학습 경험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입양동포의 정체성 형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들이 출생국과 입양국 사이의 경계적 위치에서 복합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인진, 송영호, 양대영(2012)은 해외 입양동포의 정체성을 ‘한인 정체성’과 ‘입양인 정체성’의 강약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한인 정체성이 강한 입양동포일수록 정부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도가 높으며 모국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Hübinette(2004)는 해외 입양동포의 정체성이 모국과 입양국의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제3의 공간’에서 형성된다고 보며, 이들이 양 문화의 요소를 재구성하여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체성과 모국과의 관계를 언어 경험과 연결하여 탐구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Kim(2010)은 해외 입양동포가 한국어 학습을 통해 모국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민족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 학습이 모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Trenka(2009)의 자전적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입양 경험의 문화적·정치적 의미화와도 상통한다. 또한 Kim(2012)은 신자유주의적 담론 속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어와 문화를 습득한 입양동포를 ‘인적 자본’으로 간주하며 귀환 유치 대상으로 삼는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Nelson(2016)은 입양동포가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로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위치하며 이를 통해 인종적 예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하였다.

입양인의 문화 사회화와 언어 경험에 대한 실증 연구도 병행되어 왔다. Lee et al.(2006)은 국제 입양 가정에서의 문화 사회화 방식이 입양아동의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인종 감수성과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Bergquist(2003)는 한국 해외 입양 정책 50년의 변화를 고찰하며 제도적 변화와 입양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 간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입양동포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학습 경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인혜(2007)는 성인 입양동포의 고국 방문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입양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논의를 구체화한 초기 연구로 평가된다. 김미강(2008)은 국내 체류 경험이 있는 입양동포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교육 방안과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나, 구체적인 교육 설계 제시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황윤정(2011)은 입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문화 교육과정을 제안하였으나 연구 대상수의 제한이 있었다. 구영산(2012)은 한국계 미국인 입양동포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입양동포가 결핍 담론 속에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비교적 최근 연구로 송근선(2020)은 국내 귀환 입양동포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학습 경험을 분석하였고, 설유정(2020)은 표현적 글쓰기 활동이 입양동포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으로 탐구하였다.

디아스포라 연구에서는 모국과의 접촉을 이주 집단이 출생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핵심 기제로 논의해 왔다(Levitt & Glick Schiller 2004). 이러한 접촉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 문화 경험, 언어 사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의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입양 연구에서도 문화 사회화와 모국과의 관계 경험이 입양인의 자아 개념과 민족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Lee et al. 2006). 그러나 기존 입양동포 연구는 모국과의 접촉을 개별 경험 수준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접촉 경험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정체성 변화와 연결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처럼 해외 입양동포 연구는 정체성, 모국과의 관계, 언어 및 문화 학습, 정책과 교육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교육과정 개발이나 정책 제안 중심의 연구가 많아 입양동포 개인의 경험과 감정, 정체성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질적 사례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일부

질적 연구가 존재하나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북유럽 입양동포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셋째, 한국 방문, 가족 상봉, 언어 학습과 같은 모국과의 접촉 경험이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유럽 한국 입양동포의 한국과의 접촉 경험을 물리적 접촉, 관계적 접촉, 언어적 접촉, 문화적 접촉의 네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접촉이 정체성 재구성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및 인터뷰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동포 3인으로 모두 여성이다. 참여자들은 직업과 가족 구성 등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는 2011년 홀트아동복지재단이 주최한 해외 입양동포 초청 프로그램 ‘Holt Happy Trail’과 2019년 재외동포재단(현 재외동포협력센터)이 주최한 북유럽 입양동포 대상 한국어 집중캠프를 통해 이들을 처음 만났다. 이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다. 또한 참여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직접 만나 교류하였으며, 인터뷰 과정에서도 한국 방문 계획을 공유하고 만남을 약속하는 등 관계를 이어 왔다. 이러한 관계는 참여자의 경험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이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연구자에 대한 신뢰나 친밀감이 응답 내용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이에 연구자의 선이해가 자료 해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분석 과정에서 인터뷰 원자료에 반복적으로 근거하며 해석을 유지하고 주제와 의미를 반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거주지	성별	연령	한국 방문	비고
A	노르웨이	여	50대	5회 방문	자신이 있었던 고아원 방문 경험
B	덴마크	여	30대	1년간 한국 거주, 여러 번 한국 방문	한국 가족 상봉
C	덴마크	여	40대	3회 방문, 이번 여름 재방문 예정	-

인터뷰는 줌(Zoom)을 활용한 반구조화(semi-structured) 방식의 개인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연구 참여 및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는 심층 사례 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수 사례를 통해 경험의 맥락을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2025년 4월 14일, 4월 15일, 5월 3일에 각각 약 1시간씩 영어로 진행되었고,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탐색을 수행하였다. 일상과 취미, 가족 이야기 등 비교적 편안한 주제에서 시작하여 한국 입양인 커뮤니티 참여 경험, 한국 방문 및 체류 경험, 한국어 학습 경험, 한국에 대한 감정 등으로 확장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녹음 자료는 ChatGPT를 활용하여 전사하였으며, 전사 후 연구자가 원자료와 대조하며 재검토하였다. 이후 해당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북유럽 한국 입양동포의 한국과의 접촉 경험과 정체성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Braun and Clarke(200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인터뷰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내용에 대한 친숙화를 수행하고,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이후 코드 간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여 하위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상위 주제로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제 간 관계를 검토하며 한국과의 접촉 경험이 정체성 변화 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초기 코딩 과정에서는 참여자 서사에서 나타나는 접촉 경험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이후 이를 네 가지 접촉 유형과 대조하여 범주화하였다. 또한 접촉 유형을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보기보다는 분석적 구분으로 설정하였다. 각 접촉 유형은 경험이 발생하는 주된 맥락(장소, 관계, 언어 사용, 문화적 의미화)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하나의 경험이 복수의 접촉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의 서사에서 강조되는 의미를 중심으로 주요 범주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접촉 유형에 따른 정체성 인식의 공통 주제와 차이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 간 반복적인 검토와 주제 재확인 과정을 거쳤다. 각 연구자는 독립적으로 초기 코딩을 수행한 후, 코드와 주제 도출 과정에서 상호 비교와 협의를 통해 최종 주제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의 접촉 경험을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먼저 물리적 접촉(physical contact)은 한국 방문 및 체류와 같이 모국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캠프 참여를 한국에서 이루어진 체류 및 장소 경험을 포함하는 모국 현지 접촉(homeland immersion)의 일환으로 보아 물리적 접촉에 포함하였다(Christou 2006).

관계적 접촉(relational contact)은 가족 상봉, 친족 관계 형성, 입양인 네트워크 참여 등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접촉을 의미한다. 이는 모국과의 관계를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과정과 연결된다(Levitt & Glick Schiller 2004). 언어적 접촉(linguistic contact)은 한국어 학습 및 언어 사용 경험을 포함하며,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모국과의 상징적 연결이자 자기 이해의 매개로 작용하는 경험을 가리킨다(He 2010). 문화적 접촉(cultural-symbolic contact)은 문화 체험과 미디어 소비 등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국 경험을 포함하며, 이는 물리적 방문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정체성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자원으로 기능한다(Lee et al. 2006).

이와 같은 네 가지 접촉 차원을 분석 틀로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접촉 경험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각 접촉 유형이 정체성 재구성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2〉 한국과의 네 가지 접촉 유형

접촉 유형	항목	연구자
물리적 접촉 (physical contact)	한국 방문 및 체류 캠프	Christou 2006
관계적 접촉 (relational contact)	가족 상봉 친족 관계 입양인 네트워크	Levitt & Glick Schiller 2004
언어적 접촉 (linguistic contact)	한국어 학습 언어 사용 경험	He 2010
문화적 접촉 (cultural-symbolic contact)	문화 경험 미디어	Lee et al. 2006

4. 한국과의 접촉 경험: 참여자 서사

4.1. 참여자 A

A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입양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접촉한 경험은 극히 제한적이었다가 19살에 처음으로 다른 입양인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 다른 한국 입양인들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이 ‘감정적인’ 여행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A는 “어릴 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저처럼 생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라고 하며 “처음 한국에 갔을 때 1996년이었는데 그때는 관광객도 많지 않았고, “저는 입양인입니다”라고 일일이 설명해야 했어요. 그때는 한국에 가면 저절로 섞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결

국 잘 섞이지 못하더라고요.”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실망을 느끼곤 해요. ‘여기선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말이죠.”라고 하며 소속감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는 한국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외모 때문에 무리에 잘 섞이니까요.”라고 표현했다. “저는 한국과 깊은 연결을 느껴요. 많이 가보진 않았고 살아 본 적도 없지만, 여전히 제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피력하였다. 인상적인 것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건 특히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국과 연결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라고 하며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이 한국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국에 대한 관심의 동력이 됨을 밝혔다. 그러나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으로 표면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문화적으로는 유럽인”이라고 느낀다고 하였다.

또, A는 가족 상봉과 같은 만남은 없었지만 자신이 기록상 처음 있었던 장소에 간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가족 상봉 같은 건 저에게 없었으니까요. 그랬다면 큰 사건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태어난 OO(지명)에 가서, 제가 있었던 고아원을 방문한 건 정말 의미 있었어요. 거긴 제가 기록상으로 처음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유치원으로 바뀌었지만요. 가톨릭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좋은 분위기였어요. 2022년에 가족들과 함께 다시 갔는데, 그게 아마도 제가 한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일 거예요.” 이는 외모적 동질성과 장소 경험이 결합되면서 ‘소속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언어와 행동 차이에 대한 인식은 완전한 동일시를 제한하며, 이러한 이중적 경험이 경제적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어에 대해서는 “물론 대화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한국어가 저를 한국과 가장 강하게 연결해 주는 요소 같아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제 정체성을 찾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요.”라고 말하며 한국어가 A의 뿌리와 연결된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4.2. 참여자 B

B 역시 어릴 때부터 한국인임을 인식했고 그걸 몰랐던 적이 없다고 했다. “몰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항상 솔직하게 말해주셨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 “너 왜 눈이 다르니?” 물어보면 “난 한국인이야”라고 답했거든요. 아마 다섯 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라면서 외모 때문에 모욕적인 경험도 한 바 있다. “서구에서 살다 보니, 금발에 파란 눈이 아닌 외모 때문에 특히 10대 때는 힘들었어요. 인종차별을 겪거나, “얼마면 너를 살 수 있냐” 같은 모욕적인 말도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경험해 보지는 못했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처음으로 홈커밍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생김새와 문화에서 한국 사회에 강한 친밀감을 느낀 동시에 언어와 행동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어요. 다만 어딘가에 친부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했죠. 그때 “내가 여기에 잘 섞이는구나”라는 기분을 느꼈지만, 동시에 소통할 때마다 “아, 여기가 진짜 내 집은 아니구나”라고도 느꼈어요.”

B는 그러다가 2014년에 생물학적 가족을 상봉하게 되면서 강한 정서적 충격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언어 장벽 앞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B는 수어 통역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통역 없이 가족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이를 위해 한국어 학습을 지속해 왔다. “2014년에 친가족을 만났는데, 그해 가을쯤 결심을 하고, OO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어요. 통역사 없이 가족과 직접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2011년에 만났던 자원봉사 통역사들은 그리 전문적이지 않았고, 저도 직업이 수어 통역사이다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통역사 없이 내 힘으로 말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B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재회한 후 2018년~2019년 1년 동안 거주하면서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덴마크에서는 느낄 수

없던 자기 정체성의 새로운 층위를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는 친 가족도 만났는데, 특히 동생 OO과는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들과 만난 건 제게 정말 큰 일이었어요. 놀랍고 행복한 기억이자, 형제자매가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친가족과 만나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언어소통이 안 돼서 속상하기도 했고 압도당한 기분도 있었지만, 정말 행복한 기억도 많아요. 가족과의 재회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가족 만남을 넘어 자신의 존재 서사를 재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즉, 가족 상봉은 출생국과의 관계를 생애사적 차원에서 다시 연결하면서 정체성 인식의 전환을 유발하는 핵심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자면 덴마크적 가치관이 강하며 ‘혼합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제 자신이 한국인보다는 덴마크인에 더 가깝다고 느껴요. 덴마크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규칙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몰라서 가끔 “내가 뭘 이상하게 말했나?” 싶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럼에도 가수 김광석의 노래, 드라마, 언어 접촉 등을 통해 감정적·문화적 뿌리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4.3. 참여자 C

C는 입양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한국 방문 전에는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고, 한국 문화나 생물학적 부모 찾기도 별 기대가 없었다고 했다. “덴마크는 작은 나라라 많은 입양인들이 서로 알고 지내요. 그래서 만나면 당연히 ‘입양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덴마크에는 입양되지 않은 한국인이 거의 없거든요. 제 인생에서 입양인이 아닌 한국인은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한 입양 동포 캠프에 참가하게 되면서 다른 입양인들과 강렬한 연결감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캠프에서 다른 입양인들을 만나고,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면서 너무나 강렬한 경험

을 했어요. 덴마크로 돌아온 후에도 한참 동안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까’ 고민했어요. 그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지만, 캠프 이후로는 매일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C는 덴마크어를 ‘나의 언어’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죠.”라고 언급했다. 또, 한국어보다는 한국 문화를 더 배워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언어보다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는 그다음 문제 같아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지하철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같은 작은 것들조차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선물을 어떻게 주고 받는지, 가게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단색 옷을 주로 입는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처음엔 밝은색 옷을 가져가서 제가 너무 튀어 보여 마치 전 등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라고 언급했다.

또, C는 한국 방문에서 색다른 ‘특별함’을 느꼈다고 했고, 이는 C가 한국 방문을 단순한 여행 이상의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가족과 아이들이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으면 해요. 앞으로 한국 문화를 더 깊게 배우고, 시골과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며 일상적인 한국도 체험해 보고 싶어요.”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은 한국과의 다양한 접촉 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체성을 이해하고 재구성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접촉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5. 접촉 양상에 따른 정체성 재구성

본 장에서는 북유럽 입양동포 참여자 A, B, C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접촉 경험이 정체성 인식과 소속감 형성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접촉 경험은 물리적 접촉, 관계적 접촉, 언어적 접촉, 문화적 접촉의 네 가지 양상으로 구분되며, 각 양상은 서로

중첩되면서 참여자들이 한국과의 연결을 경험하는 서로 다른 경로로 가능하고 있었다.

5.1. 물리적 접촉: 한국 방문과 체류 경험을 통한 정체성 감각

한국 방문과 체류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출생국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장 가시적인 경험으로, 정체성 인식 변화의 중요한 계기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나 반복 방문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한국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강화하는 경험으로 인식되었다.

참여자 B는 한국에서의 1년 체류 경험을 정체성 변화의 핵심 계기로 설명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생활한 이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 경험 이후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어요. 전에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 1년 살고 문화를 배우면서 한결 나아졌어요.” (참여자 B)

이 진술에서 한국 체류 경험은 단순한 생활 경험을 넘어 자신의 삶에서 결핍되어 있던 부분을 채우는 과정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또한 한국 방문이 정체성 완성감과 연결된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A 역시 한국 방문 경험을 자신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강화하는 계기로 인식하였다. 그는 한국 방문이 자신을 한국인에 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에 가는 경험이 저를 더 연결된 느낌이 들게 하고, 어찌면 더 한국인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걸 배우니까요.” (참여자 A)

참여자 C에게도 한국 방문은 일반적인 해외 여행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경험으로 표현했으며, 한국에서의 감각적 경험이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표현하였다.

“그냥 관광 가는 기분이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하죠. 냄새나 소리 같은 것도 익숙하게 느껴지고요” (참여자 C)

또한 한국에서 외모적으로 동질적인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경험이 긍정적 정체성 감각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다들 저처럼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안경도 다 잘 맞고, 버스 손잡이도 잘 잡히고요.” (참여자 B)

그러나 동시에 언어와 문화 차이는 완전한 소속감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행동도 다르고 언어도 못하니까 결국 잘 섞이지 못하더라고요.” (참여자 A)

이러한 진술은 참여자들이 한국을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감각적 친숙성을 지닌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물리적 접촉 경험은 외모적 동질성을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면서도, 언어·문화 차이를 인식하며 완전한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5.2. 관계적 접촉: 가족 상봉과 입양인 공동체

관계적 접촉은 친가족 상봉과 입양인 공동체 형성을 통해 나타나며, 참여자들의 정체성 구성에 가장 강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접촉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상봉은 출생국과의 관계를 생애사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전환점으로 기능하였다.

참여자 B는 친가족과의 만남을 삶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설명하였다.

“친엄마, 두 명의 남동생, 그리고 이복여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

과 만난 건 제게 정말 큰 일이었어요. 놀랍고, 행복한 기억이자, 형제자매가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참여자 B)

특히 형제와의 관계 형성 경험은 가족 존재에 대한 실감과 연결되어 있었다.

“김포에서 군복무 중인 OO(남동생 이름)을 만나러 간 건 정말 놀랍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 나한테 이런 형제가 있구나’ 하는 아주 강한 유대감이 들었어요.” (참여자 B)

이 진술은 가족 상봉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자신의 존재 서사를 재구성하며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음을 보여준다.

“가족과의 재회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

입양인 공동체와의 관계 역시 정체성 확인과 소속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 B는 한국 방문 중 다른 입양인들과 처음 만났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2011년에 한국에 왔을 때 처음으로 다른 입양인들과 함께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B)

참여자 A 역시 입양인 사이에서 관계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들과는 더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공통된 경험이 많아서요.” (참여자 A)

이처럼 관계적 접촉은 참여자들이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서적 소속감을 강화하는 경험

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적 접촉 경험은 친가족이나 입양인 공동체와의 만남을 넘어, 입양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과 해석으로 확장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들은 해외입양을 단순한 가족 형성 과정이 아니라, 국가와 기관이 개입한 구조적 체계로 인식하며 이를 ‘입양 산업(adoption industry)’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입양 경험을 개인적 서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제도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입양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관계적 접촉 경험을 심화시키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5.3. 언어적 접촉: 한국어 학습과 사용 경험

한국어 학습과 사용 경험은 참여자들이 한국과의 연결을 경험하는 중요한 매개로 나타났으나, 그 의미와 정체성 관련성은 참여자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참여자 A의 진술은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상실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매개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는 그걸 위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잃어버린 제 한국적 정체성의 일부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한국어가) 저를 한국과 가장 강하게 연결해 주는 요소 같아요.”
(참여자 A)

참여자 B에게 한국어 학습은 가족과의 직접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며, 이후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험으로 변화하였다. 그는 한국어 학습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통역사 없이 가족과 직접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통역사 없는데 힘으로 말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국어가) 제 일부 같아요.” (참여자 B)

반면 참여자 C는 한국어를 정체성보다는 기능적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에게는 덴마크어가 제 언어예요. 한국어는 감정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도구’로 여겨져요.” (참여자 C)

이처럼 언어적 접촉은 참여자 모두에게 한국과의 연결 경험을 제공하지만, 언어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정도와 방식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였다.

5.4. 문화적 접촉: 문화 경험과 감정적 연결

문화적 접촉은 미디어, 음식, 개념 이해, 일상적 문화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되며, 참여자들이 한국과의 정서적 연결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로로 나타났다.

참여자 A는 한국 문화 경험이 익숙함과 소속감을 제공한다고 하며 문화 개념 이해가 정체성 연결을 강화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한국 식료품점에 가면 익숙하고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恨)’이라는 개념이 인상 깊었어요… 그게 저를 한국과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참여자 B는 가족 행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설명이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친구들이 ‘그건 문화적인 거야’라고 설명해 줘서… 이제는 좀 더 부리를 내린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B)

이처럼 문화적 접촉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사회적 규범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한국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5.5. 접촉 경험의 통합적 의미: 경계적 정체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계적 정체성’은 Hübinette(2004)가 제시한 ‘제3의 공간(third space)’ 개념과 맥락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연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제3의 공간’이 문화적 경계 사이에서 형성되는 혼종성과 위치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본 연구의 ‘경계적 정체성’은 참여자의 구체적 경험 서사를 바탕으로, 두 문화 사이에서의 양가적 소속감을 보다 경험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즉,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고, 접촉 경험이라는 분석 틀을 통해 정체성 형성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계적 정체성’은 참여자들이 한국과 입양국 사이에서 완전한 소속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두 문화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험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정체성은 참여자의 구체적 서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세 참여자의 경험을 종합하면, 한국과의 접촉은 단일 경험이 아니라 물리적·관계적·언어적·문화적 차원이 상호작용하며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상봉과 언어 학습은 정체성 인식의 전환점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한국 방문 경험과 문화 경험은 지속적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과 입양국 사이에서 완전한 소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계적 감각을 공통적으로 토로하였다.

“가끔은 제가 어딘가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참여자 A)

“어디에 있든 뭔가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덴마크에 있으면 한국이 늘 그립고, 한국에 가면 덴마크가 그리워요.” (참여자 B)

이러한 진술은 단일한 문화적 소속에 완전히 안착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두 문화 모두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경계적 정체성’으로 개념화한 양가적 소속 경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입양동포의 정체성이 단일 문화 귀속이 아니라 복수의 문화적 연결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적 구성임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결핍이나 혼란으로 환원되기보다는, 복수의 문화적 연결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적 정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접촉 경험은 참여자들이 한국과 입양국 사이의 경계적 위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핵심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덴마크·노르웨이 출신 북유럽 한국 입양동포 3인의 사례를 통해, 한국과의 접촉 경험이 정체성 인식과 소속감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경험은 (1) 물리적 접촉(한국 방문·체류 및 캠프), (2) 관계적 접촉(가족 상봉·친족 관계 및 입양인 네트워크), (3) 언어적 접촉(한국어 학습·사용), (4) 문화적 접촉(문화 이해·미디어 등 상징적 경험)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접촉은 서로 중첩되면서 정체성 재구성의 경로로 기능하고 있었다.

첫째, 물리적 접촉은 한국을 ‘감각적으로 익숙한 장소’이자 ‘외모적으로 동질적인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연결감을 강화하는 계기였다. 다만 언어와 행동 규범의 차이는 ‘여전히 완전히 섞이지 못한다’는 이질감도 동시에 부각시켜, 소속감과 거리감이 공존하는 양가성을 드러냈다. 둘째, 관계적 접촉은 정체성 재구성에 가장 강한 정서적 밀도를 부여하였다. 특히 가족 상봉은 출생국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전환점이었고, 입양인 공동체는 설명 없이도 이해받는 경험을 통해 소속감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일부 참여자들은 입양을 개인의 가족사에 한정하지 않고 ‘입양 산업(adoption industry)’과 같은 구조적 언어로 해석하며, 입양 경험을 사회·제도적 맥락 속에서 재의미화하였다. 셋째, 언어적 접촉은 가족과의 직접 소통 욕구, ‘잃어버린 정체성의 일부’를 찾는 과정 등으로 의미화되며, 단순 기능을 넘어 자기 이해의 매개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어를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우와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공존하여, 언어의 정체성적 의미에는 개인차가 확인되었다. 넷째, 문화적 접촉은 일상적 경험(음식, 미디어, 문화 개념 이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고, 한국 사회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정체성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북유럽 입양동포의 정체성은 단일 문화 귀속으로 환원되기 보다, 접촉 경험의 축적과 해석을 통해 형성되는 경계적·혼합적 정체성의 성격을 보였다. 이는 한국과의 접촉을 “있다/없다”로 단순화하기보다, 접촉의 유형과 의미화 과정을 함께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참여자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성별은 입양 경험 및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남성 입양동포의 경험은 본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접촉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의 양상은 특정 성별에 제한된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영산(2012). 한국어 학습 동기화 과정에 대한 연구: 국제 한인 입양인을 둘러싼 결핍의 담론 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1), 183-217쪽.
- 권희정(2015).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 연구> 15(1), 51-98쪽.
- 김미강(2008). 해외입양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학습자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영(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젠더와문화> 6(1), 7-41쪽.
- 박인선(199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유정(2020). 한국어 표현적 글쓰기 경험을 통한 재미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 및 변

- 화 인식 연구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근선(2020). 귀환 해외입양인 정착과정에서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사례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인혜(2007). 국외 입양인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35, 191-226쪽.
- 윤인진·송영호·양대영(2012). 해외 입양동포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입양동포 정책 및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학보> 26, 57-84쪽.
- 장윤수(2008). 한인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세계지역연구논> 26(3), 83-103쪽.
- 재외동포사총서(2007). 북미주 한인의 역사(하).
- 황윤정(2011). 입양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pp. 77-101.
- Bergquist, K. J.(2003).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5(4), pp. 399-414.
- Christou, A.(2006). American dreams and European nightmares: Experiences and imaginings of second-generation Greek American return migrant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2(5), pp. 831-845. <https://doi.org/10.1080/13691830600704263>
- He, A. W.(2010). The Heart of Heritage: Sociocultural Dimensions of Heritage Language Learning,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0, pp. 66-82. doi:10.1017/S0267190510000073
- HübINETTE, T.(2004). Adopted Korean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in the "third space.", *Adoption & Fostering*, 28(1), pp. 16-24. <https://doi.org/10.1177/030857590402800104>
- Kim, E. J.(2010).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ke University Press.
- Kim, E. J.(2012). Human capital: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neoliberal logic of retur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7(2), pp. 299-328.
- Lee, R. M., Grotevant, H. D., Hellerstedt, W. L., Gunnar, M. R., & Minnesota International Adoption Project Team.(2006). Cultural socialization in families with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4), pp. 571-580. <https://doi.org/>

10.1037/0893-3200.20.4.571

Levitt, P., & Glick Schiller, N.(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pp. 1002-1039. <https://doi.org/10.1111/j.1747-7379.2004.tb00227.x>

Nelson, K. P.(2016). *Invisible Asians: Korean American adoptees*, Asian American experiences, and racial exceptionalism. Rutgers University Press.

Trenka, J. J.(2009). *Outsiders within: Writing on transracial adoption*, South End Press.

필자 소개

성 명 한혜민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조교수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자우편 hmhan@hufs.ac.kr

성 명 안정민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KFL학부 부교수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자우편 ahnjm@hufs.ac.kr

| Abstract

Exploring Korean Contact Experiences and Identity Reconstruction among Nordic Korean Adoptees

Han, Hae-min · Ahn, Jeong-m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how contact with Korea shapes identity and belonging among Nordic Korean adoptee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adoptees from Denmark and Norwa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Four types of contact were identified: physical, relational, linguistic and cultural. Physical contact fostered connection through embodied familiarity while also highlighting outsiderhood. Relational contact—especially family reunion—had the strongest impact on identity transformation. Linguistic and cultural contact functioned as ongoing mediators of connection to Korea. Participants described their identities as boundary-crossing and hybrid between Korea and their adoptive countries. By typologizing adoptees' contact experiences and linking them to identity reconstruc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research on intercountry adoptees and diaspora identity.

[Key words] Korean adoptees, intercountry adoption, Nordic countries, contact, identity

투고일 2026. 02. 25 / 심사일 2026. 03. 18 / 게재확정일 2026. 03. 23